



2018년 12월 30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다)

제2020호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루카2,51)

■ 미사 전례

- 제 1독서: 집회 3,2-6. 12-14
- 화답 송: (악보 참조)
- 제 2독서: 콜로 3,12-21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복 음 : 루카 2,41-52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7:00

오전 9:00(영어미사)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00

◎ 화답송



전례 봉사	일시		해설	독서	봉헌	평일	해설		독서
	금주	07:00	백 로즈마리	4구역	2구역		수	백 로즈마리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Pr
		11:00	박 안토니아	1반	2반		목	이 소화테레사	성령 기도회
다음주		07:00	백 로즈마리	4구역	2구역	일	금	고 세실리아	금요 성경반
		11:00	박 로사	2반	3반				

봉사차레
안내

성경의 인물 86 하느님께 올바른 기도를 한 세리

어느 날 세리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다. 늘 그렇지만 그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건 큰 고통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멸시하며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이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늘은 용기를 내어 성전에 오게 된 것은 며칠 전부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했기 때문이다. 간신히 눈치를 보며 성전을 기웃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흘깃 쳐다보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낮이 익은 바리사이파 사람이었다.

바리사이파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이란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적 당파 중 하나로 불경건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일반인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생을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들에게 율법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죄인들, 특히 세리 같은 사람을 무척 경멸했다. 바리사이파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성전에 들어간 바리사이파 사람은 큰 소리로 마치 세리더러 들으라는 듯 큰소리로 기도를 했다. “하느님 아버지 저를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하느님 말씀대로 탐욕스럽지도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지금 저 구석에서 땀땀스럽게 기도하는 저 세리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단식하고, 수입 중에 십일조를 꼬박 꼬박 헌금했습니다. 저를 특별히 보살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엄청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마치 기도가 무슨 유세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갖게 할 정도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느님을 계약을 충실히 지키면 복을 내리고 아니면 벌을 주는 분으로 믿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마음은 본받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셨다. 위선이란 단순히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만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왜곡된 신앙에서 비롯되는 종교적 행위를 언급한 것이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자선, 기도, 단식 등과 같은 종교적 행위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기 때문에 비뚤어진 행위가 되기가 쉽다. 예수시대 종교 지도자였던 율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사람들을 하느님께 순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예속시킴으로써 하느님의 권위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 유대사회의 기득권층의 권리와 자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바리사이들의 위선과 잘못된 가르침은 특히, 십일조와 같은 율법의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저버리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난다.

예수는 이처럼 위선적인 율사와 바리사이들을 두고 눈먼 길잡이들이라고 공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위를 진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사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며,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영혼의 장님들이요, 귀머거리들이었다. 자신들만이 하느님의 대변자며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하느님이 사랑의 존재임에는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사실 자신만이 열심히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죄인인 세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했다. 그는 성전 안에서의 다른 이들의 시선도 따갑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다.

“하느님 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세리는 아무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세리는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것 하나 하느님께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오직 자비만을 빌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리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이다. 아니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세리는 어렴풋이나마 죄 많은 자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느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인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죄스러움을 아는 것이다. 신비스럽게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될 때 하느님의 존재에도 눈뜰 수 있게 된다. 인간적인 판단과 하느님의 판단은 다를 때가 많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입법자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열심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였다.” <평화신문, 제650호(2001년 11월 4일),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성서못자리 전담)>

성삼 소식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2019년 1월 1일(화) 오전 11:00
- *오전 7시,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사목회에서 떡국 준비합니다.

☞ 故현기호(시몬) 신부님 33주기 추모

- 12월 30일(주일)

☞ 성시간

- 일시: 1월 3일(목) 오후 7:30미사 후

☞ 첫 토요 신심미사

- 일시: 1월 5일(토) 오전 8:00(목주기도 오전 7:20)
- 미사 후에 셀기도 임원회의, 502호

☞ 예비자 교리반 일일 피정

- 일시: 1월 6일(주일) 오후 1:00 ~ 3:00
- 장소: LA 주교좌 성당 방문

☞ 감사합니다.

- 성탄 대축일 제대 장식을 위한 꽃 봉헌 해주신 교우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대회-
- 故장숙자의 연도에 함께하시어 기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신 교우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주일학교 · 한국학교 · 청소년

☞ 성삼 한국 학교 2학기 학생 모집

- 개학 및 등록: 2019년 1월 5일(토) 오전9:00
- 수업시간: 오전 9:30 ~ 오후 12:30
- 대상: 유치부~12학년
- 수업료: 한자녀 \$175. 두자녀 \$300. 세자녀 \$425. (간식비, 교재비, 특활반 포함)
- 문의: 박미향(안토니아) ☎213-507-1802
유바실라 수녀님 ☎323-828-8876

☞ 동전 모으기(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12월 23일	\$5.99	누계	\$920.70
---------	--------	----	----------

종식 봉사		금주	8조 / 4구역 3반	조개 배추 된장국	다음주		7조 / 4구역 4반
다음주	단체명	시간	장소	다음주	단체명	시간	장소
	성경 봉사자	08:30	성삼홀		반장회의	12:30	201호
	주일학교 복사단	12:00	201호		연령회	12:30	101호

단체모임

우리들의 정성 (2018. 12. 23 현재)

교무금	13,600.00	교무금 / 건축헌금 / 감사헌금 (41명) 강치원,고수엽,김경옥,김대식,김명해,김복선,김진정,김향철,남신성, 독고근,박경자,박병호,박정환,박진우,박효신,배광남,변봉진,서정풍, 손정애,신규원,오영수,유병욱,유인철,윤성한,이기윤,이봉화,이수환, 이승훈,이영자,이정미,이태종,이혁주,임재찬,장우상,채효중,최기창, 최순범,최재각,최진규,하준호,한선영.
주일 헌금	2,481.00	
건축 헌금	70.00	
감사 헌금	1,340.00	
광고비	1,050.00	
성당 사용료	1,500.00	

본당살림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고려 여행사 LA 8가와 웨스턴 코너 since 1972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페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페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Hair World 최 세실리아 213-268-8549 853 S. Western Ave. 코리아타운 로데오 몰	Global Financial & Insurance Life/IRA/사업체/건물/종업원상해/그룹건강 Juliana Jin Kim 818-640-3992 pncglobal@gmail.com Lic#0G10657	SAHARA -HOTEL & SPA Tel: 213-700-9630 66700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info@saharahotelandspa.com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애실) 213-500-9393	이길웅(분도)치과 Vine Dental Care ☎ 323-465-2828 954 Vine St. Los Angeles Melrose + Vine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교정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변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황창연신부님의 평창 생태마을 청국장가루 김재영 베로니카 (213) 905-9282 *수익금은 "예수성심 피정 집" 건립 기금으로 쓰입니다.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글라라	장영화 Piano Studio •음대·대학원 피아노과 졸업 MM Degree •대학교수직 및 피아노스튜디오 20년 경험 •각종 피아노 콩쿨 다수 입상 •MTAC & SYMP 멤버 Studio (818) 400-1343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소화 한의원 (체질에 맞는 침, 약) ☎ 213-739-3113 3054 W. 8th st. #202 (8가와 뉴햄프셔 코너) 원장 : 박 데레사
리틀도쿄홈마트 생활가전, 의류, 건강, 주방용품 3가+알라메다, 마켓2층 206호 (213)620-0605, (213)280-7911 서 안토니오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48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개
Hankook Plumbing 가정,식당,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곳은 뚫어드리고 뚫린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친정 김치 맛있는 친정엄마의 손맛 가주/한남/프라자/도레미 김 아오스당 (213)623-7088	늘 웃는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일반치과 966 S. Western Ave. #207 (323)734-3710, (323)734-3720 이 요한 DDS, Ph.D	부동산 케이티 한(카타리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 하겠습니다. C:213-800-1700 SK Realtor
에어콘 수리 및 설치 최효선(요안나) 626-804-4178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TBS COPIER SCAN FAX 오 마태오 213-248-1338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화장품, 생활 필수품. 조 마리아 818-653-3313 고 소피아 818-522-4073